

새로운 한국어 존대 종결 어미 사용 양상*

안정근

(전북대)

Ahn, Jeong Khn. (2017). The use of new forms of honorific final ending in Moder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5(3). 173-192. This study examines new forms of honorific final ending which have emerged in recent years in Modern Korean such as '-ta-yo', '-haca-yo', and '-ha-si-keyss-supni-ta'. '-ta-yo' is mostly used by young girls as an honorific final ending towards the adults, particularly the intimate ones including their parents and teachers. It is often used by their female teachers as well towards the intimates as a linguistic mechanism to lessen the awkwardness when they boast of something or try to become more intimate relation with them. '-haca-yo' is generally used by young adults particularly on SNS (Social Network Service) when they ask, advise, recommend, or suggest others on the Net to do something together. '-ha-si-keyss-supni-ta' is used usually by a person in authority in places such as school and church when he/she encourages, asks, advises, or recommends others to fulfill a promise or commands. As indicated, these new forms of honorific final ending in Modern Korean are exclusively used by some particular groups, i.e. '-ta-yo' by young girls and their teachers, '-haca-yo' by young adults, and '-ha-si-keyss-supni-ta' by a person in authority, showing the politeness in language use towards others. They are often treated as wrong honorific final endings in Korean but there still is a possibility or potential for them to become right honorific ones sometime in the near future as witnessed in other Korean words such as 'sakulsey' (monthly rent) once treated as a wrong word but finally acknowledged to be right ones.

주제어(Key Words): 존대법(honorifics), 최근 한국어 존대 종결 어미(honorific final ending in Modern Korean), 존댓말(politeness in language use), '다요'('-ta-yo'), '하
자요'('-haca-yo'), '하시겠습니까'('-ha-si-keyss-supni-ta')¹⁾

* 이 논문은 201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본 논문의 한글 로마자 표기는 Yale system을 따름.

(i) '-ta-yo'

1. 서론

잘 알려진 것처럼 존대어 또는 존칭어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이웃 일본어나 자바어 같은 아주 소수의 언어에만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다. 영어를 비롯한 인도유럽의 언어 그리고 가까운 중국어도 존대어라고 말할 만한 언어체계가 거의 없다. 분명 존대어의 발달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언어 규범의 일환이다. 한국어의 존대어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언어 규범을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이다.

한국어에 나타나는 존대어는 말 그대로 대화 상대방을 존대하는 말로서 존대 이외에 경어, 대우, 존칭 같은 용어로도 사용된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만 존대가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존대의 의미를 가져오는 존비 또는 공손도 넓은 의미의 존대에 속한다. 영어로 말하면 politeness의 개념을 포함하는 honorifics가 존대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존대 표현은 다양하다. 주로 상대방을 존대하는 주체 존대, 자기를 낮추는 공손, 특정 사물을 존대하는 객체 존대의 형식으로 존대 표현이 나타난다. 주체 존대는 굴곡 어미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나 조사 ‘께서’ 또는 문장 끝에 존대어 ‘-요’를 붙이는 형식으로 나타난다.(Choi, 2004; Yaang, 2006) 객체 존대는 특정한 객체 예컨대 밥을 식사 또는 진지로, 집을 댁으로, 나이를 연세로 존대하는 일종의 해당 존대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난다. 공손 표현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으로 자기를 낮추는 ‘저’ 또는 ‘제’로, 문미에서는 ‘-시오’, ‘-하오’, ‘-해요’ 같은 청유형으로 나타난다. 청유는 요청과 명령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인데 상대에 대한 존대를 빼면 명령에 가까운 표현이다. 따라서 청유는 상대에 대한 요청, 요구, 제안을 존대로 표현할 때나 더 나아가 친교, 의례, 협의, 동의, 광고, 교훈, 심지어 부드러운 명령을 할 때 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어의 존대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존대를 배우는 유아부터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존대의 사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어가 모국어인 유아도 한국어의 존대 표현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비문법적 존대 표현 특히 규범에 어긋나는 객체 존대는 최근 현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컨대 ‘이 가방은 10% 세일이십니다’, ‘주문한 커피 나오셨습니다’, ‘웃이 참 예쁘세요’, ‘엘레베이터 올라가십니다’ 등은 고객을 존대하다 못해 이제는 고객에 관련된 객체마저 잘못 존대하는 비문법적 표현으로

DEC-Honorific Particle

(ii) ‘-haca-yo’

let’s do-Honorific Particle

(iii) ‘-ha-si-keyss-supni-ta’

do-Honorific Affix-GUESS-POLITE-DEC

나타나고 있다.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변천이 이러한 한국어의 비문법적 존대 표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어에 나타나고 있는 비문법적이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존대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다요’ 존대, 3장에서는 ‘-하자요’ 존대, 4장에서는 ‘-하시겠습니까’ 존대를 중심으로 그 사용 주체, 존대 대상, 사용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5장에서는 결론으로 이러한 새로운 존대 형태가 한국어에 변이 형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논의 한다.

2. ‘-다요’ 존대

한국어 종결 어미 ‘-다요’는 그동안 아래 표 1, 2에서 보이듯 종결 어미 ‘-다’에 보조사 ‘-요’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요’ 표현이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 한국어 말뭉치(corpus)가 구어에서 축적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 듯하다.

표 1.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전 문어에 나타난 ‘-다요’

| 유형 | 개수 | 예 |
|--------------------------------|-----|--|
| 1. 종결어미+보조사 니,시 [다+요] | 304 | “아니, 내 말은 그렇게 내가 꼭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것보다도 오늘 내가 술을 안 먹고는 도저히 혈 수가 없는 이야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요 멋진 한세상/2001/창작과비평사/책 |
| 2. 전남방언 대요→[다요] | 161 | “이것이 뭐 다요?” 멋진 한세상/2001/창작과비평사/책 |
| 3. 비교급조사+보조사 -보[다+요] | 5 | 솔직히 그런 비디오 보다요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게 더 수준이 높은 거 같애요. 뉴스데스크 95/02/09/MBC 뉴스데스크/TV뉴스 |
| 4. (전부) 부사+보조사 [다+요] | 8 | “어머머, 이 양반 좀 봐. 그래 짤만 있으면 <u>다요</u> ?” 한국 전래 동화집5/1980/창작과 비평사/책 |
| 5.(날날이 모두)보조사+보조사 매[다+요] | 35 | “ <u>알다마다요</u> ” 장길산3/1995/창작과비평사/책 |
| 6. 종결어미+보조사 [다+요] | 11 | “그리고는 그 양반이 하는 소리 <u>겠다요</u> ” 태평천하/ 단편선,1994/마당미디어/책 |
| 7. 관계없음 | 32 | “저 사실은 사이 <u>다요</u> ”, “세상이 온통 물바 <u>다요</u> ”, ‘승차거부 <u>과다요</u> 금’ |
| | 556 | |

표 2.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전 구어에 나타난 ‘-다요’

| 유형 | 개수 | 예 |
|---------------------------------|----|---|
| 1. 비교급조사+보조사 -보[다+요] | 1 | “평균이 모집단보다요?” 수업대화_과외수업/2004/ 수업 대화 녹음 |
| 2. (전부) 부사+보조사 [다+요] | 2 | “둘 다요” 강의_국어정보학/2003/일상 대화 녹음 |
| 3. (날날이 모두)보조사+보조사 매[다+요] | 2 | “서로 볼 때마다요.” 설교_교회특강/2002/목사의 특강 녹음 |
| 4. 종결어미+보조사 [다+요] | 2 | “와맙니다요” 주제대화_향수와영화/2002/일상 대화 녹음 |
| | 7 | |

위 표 1, 2는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전(<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에 나타난 ‘-다요’ 표현을 그 사용 유형에 따라 편의상 분류한 것이다. 위 표 1, 2에서 보이듯 종결어미 ‘-다요’ 형태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주로 존대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존대는 존대인테 사실 보조사 ‘-요’를 덧붙이지 않아도 표 1 유형 1에서 보이듯 ‘-말입니다’로서도 이미 존대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보조사 ‘-요’는 필요하지 않은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다요’의 존대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존대를 너무 강조하거나 극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려는 화자의 언행으로 보인다. 사실 ‘선생님은 교실에 계십니다요.’ ‘예, 저희는 아무 데나 관계없습니다요.’ 같은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 지금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극존대 표현이다.

그런데 아래 문장에서 보듯 요즘 어린 유아에서 예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러한 ‘-다요’ 형태의 존대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 1) 선생님. 나 어제 엄마랑 짜장면 먹었다요.
- 2) 엄마. 나 학교에서 영화 봤다요.
- 3) 제는 좋아지면 얼굴이 빨개진다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과도기적 존대 종결어미 ‘-다요’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아이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이미 유아기때 한국어 종결어미 ‘-다’와 존대 종결어미 ‘-요’ 그리고 선어말 존경어미 ‘-시’를 포함한 존대 표현 ‘-세요’를 사용한다. (이귀옥,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요’ 표현은 그들이 그것을 대체할 다른 존대 표현을 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엄마. 나 학교에서 영화 봤다요.”는 ‘봤어요’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 4) 엄마. 나 학교에서 영화 봤다.
- 5) 엄마. 나 학교에서 영화 봤어.
- 6) 엄마. 나 학교에서 영화 봤다요.
- 7) 엄마. 나 학교에서 영화 봤어요.

존대 표현인 ‘봤어요’는 ‘봤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고 ‘봤다요’는 ‘봤다’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왜 ‘봤어’보다 ‘봤다’를 사용하여 어설픈 존대 표현인 ‘봤다요’를 쓰는 것일까? 아래 비슷한 유형의 네 가지 표현을 보자.

- 8) 엄마. 나 학교에서 이거 먹어 봤다.
- 9) 엄마. 나 학교에서 이거 먹어 봤어.
- 10) 엄마. 나 학교에서 이거 먹어 봤다요.
- 11) 엄마. 나 학교에서 이거 먹어 봤어요.

위 네 가지 표현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다요’ 표현은 웬지 그들이 경험한 바를 친숙한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말하는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다요’ 존대 표현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아이에게서 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애니메이션 영어 외화 *Home*에서 어린 아이들의 말을 한국어로 표현하면서 보이는 ‘-다요’는 웃음을 자아내기 충분한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 외계인 Oh는 남자인데 그의 말투를 번역한 아래 문장을 보자. (*Home*, 2015)

- 12) 우리 저 밑에 있다요.
- 13) 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대요.
- 14) 어떻게 찾았지. 나도 모른대요.
- 15) 계산이 안맞는대요.
- 16) 성공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요.
- 17) 아직 안전한 건 아니대요.
- 18) 그럼 슬러시 다시 비행 가능 하대요.
- 19) Tip(여자 아이): 니들 도망치기 선수구나.
Oh: 도망치기 일등이다요.
- 20) 이럴 시간 없어. 그래야 안전하대요.
- 21) 이 혜성을 산산조각 낼거대요.
- 22) 하지만 희망은 있다요.

이상에서 보이는 Oh의 말투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화 상대방이 자기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다요' 표현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번역은 한국에서의 실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영터리 번역인 것이다. 아래 23) 문장은 어른에게 Oh가 말하는 것으로 존대의 '-다요'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23) The Boov는 훌륭한 종족이지요.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많아요. (Home, 2015)

결론적으로 영화 *Home*의 Oh의 한국어 번역은 그가 아무리 외계인이라고 하여도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다요' 표현이 같은 또래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남자 아이에게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린 학생들의 '-다요' 표현은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나타난다. 즉 어린 여자 아이들이 사용하는 '-다요'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교사에게 전이가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다요'는 남자 교사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여자 교사에게서만 나타나며 그들이 학생을 상대로 이런 '-다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나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 예문은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학원 여교사가 남자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24) 나 오늘 옷 샀다요.

25) 그 영화 참 재밌다요.

즉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어린 아이처럼 보여 상황의 민망함을 줄이거나 '-다요'를 애교 섞인 말투로 사용하고 있다. 친한 사이라도 말을 놓자니 그만큼 친한 관계는 아니고 그렇다고 존대를 하자니 그만큼 먼 관계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종종 '-다요'가 귀여운 말투로 사용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26) (카카오톡, 김샘방, 2016)

오라버니와 김샘에게 마음의 평화가 빨리 찾아 왔으면 하고 바란다요.

어느새 둘이 너무 닮아 있더라.

말투 단어 억양까지 마음의 흔들림조차.

이 동생이 기대어도 편안한 두 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요^^

이 예문은 사회에서 형성된 서너 살 차이나는 여동생(학원강사)이 오빠에게 보낸 메시지다. '-다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종합하면 최근 나타나는 '-다요' 표현은 어린 여아에게는 존대 보조사 '-요'를 문장 끝에

붙이면 존대 표현이 다 된다는,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의 불완전한 존대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반면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여교사들에게는 ‘-다요’ 표현이 존대의 표현보다는 애교 섞인 말투로 가까운 관계를 지향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3. ‘-하자요’ 존대

보통 ‘-하자’ 또는 ‘-합시다’로 종결되는 청유문은 대화 상대방에게 요청이나 제안을 통해 화자와 함께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언어 행위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 27) 이번 일요일에 산에 갑시다.
- 28)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하자.

위 예문들은 청유문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청자나 화자 모두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때에 따라서는 청자에게만 요구하는 청유가 있는데 아래 예가 대표적인 사례다.

- 29) 조용히 하자.
- 30) (시끄러운 식당에서) 뉴스 좀 들읍시다.

위 문장들은 요청이나 제안을 넘어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사실 명령과 요청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친한 사이에서는 명령으로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 31) 청소 좀 하자.
- 32) 서둘러 (갑시다).

위 예문은 친한 사이에서 주로 쓰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는 아래 문장처럼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 33) 다음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 합시다.
- 34) 음식이 잔데 좀 싱겁게 먹읍시다.
- 35) 에너지를 절약 합시다.

청유문의 특성 상 화자의 요구를 청자가 꼭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의 요구를 듣게 하려면 화자는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또한 청유는 불특정 일반 대상을 향해 교훈이나 광고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36) 바르게 살자.

37) 건강을 위해 운동 합시다.

위와 같은 교훈적 청유는 범국민적 슬로건으로 종종 쓰이고 있다.

38) 그 옛날 엄마의 손맛을 맛보고 싶다면 원조식당으로 가십시오. (식당 광고)

39) 새로 나온 음료수 먹고 유럽 여행 공짜로 가자. (음료수 경품 광고)

위 예문에서 보이듯 광고에서는 종종 청유의 형태로 자기의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이러한 형태의 광고 카피가 유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청유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 기능 또한 다양하다. 그런데 이러한 청유의 형태와는 다른, 최근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많이 나타나는 청유의 형태로 '-하자요'가 있다. 우리가 최근 많이 접하는 인터넷으로는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가 있고 SNS는 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메신저로는 카카오톡, 라인 등이 있다. 이러한 매체에 나타나는 언어 특징은 언어 경제성을 반영하는 축약 형태('덴봉', '섬'), 인간 감성을 대변하는 이모티콘 사용(^*^, ^^;;) 그리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언어 파괴('추카', '아라') 등이 있으며 이상한 형태의 호칭(' 쌤', '님아') 이나 특이한 형태의 문장의 끝맺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하자요' 인데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청유의 '-하자'에 존대 보조사 '-요'가 결합된 일종의 이상한 존대 표현이다. 아래 예문은 모두 SNS에서 발췌한 것이다.

40) (카카오톡, 중딩방, 2016)

(30대 여교사와 중학교 남학생 카카오톡 대화)

남학생: 쌤~

오늘 30분만 일찍 끝내자요

섬 끝나서 애들이랑 영화보기로 해서... ㅠㅠ

여선생님: 헉 ~~;;

흠.....

이따 수업하는 거 바셔 ㅌㅌ

남학생: 담 시간에 더 마니 하겠다는 ^^;;

여선생님: 알쏘 ㅠ

41) (카카오톡, 여친목방, 2016)

(30대 초중반 여자 4 명 친목 카카오톡 대화)

선희: 여러분~

12월이 되었습니다. ^^

섬기간 끝나고 셋째 주에 송년회 하자요 ㅋ

지수: 그러자요 ㅎㅎㅎ

미선: 엡~

빨리 만나자요

은지: 조아연 ♡♡

위 예문에서 나타나는 ‘-하자요’, ‘끝내자요’, ‘그러자요’, 또는 ‘만나자요’ 같은 이상한 존대 표현은 문장 종결어미 ‘-자’에 존대 보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다. 이 문장에서 보조사 ‘요’를 빼면 앞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청유문이 된다. 그런데 굳이 보조사 ‘요’를 덧붙인 이유는 예문 40)에서 보이듯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청유이기 때문에 ‘-하자’로 끝맺지 못하고 존대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 ‘요’를 붙여야만 했던 것이고 예문 41)에서는 대화 상대방이 서로 알고 있는 학원 교사들이지만 그렇다고 전형적인 청유 표현을 쓰기에는 좀 어색한 관계인 듯하다. 사실 여기 4 명의 교사들은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두 명은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즉 서로 알고는 있오되 그렇다고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라는 점에서 청유의 ‘-하자’ 또는 ‘-만나자’에 존대 보조사 ‘요’를 붙여 희한한 존대 표현 ‘-하자요’ 또는 ‘-만나자요’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SNS에서 별로 낯설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표현이 SNS에서는 거리낌 없이 통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위 예문에서 보이는 이모티콘 사용, 형태 축약이나 변이 역시 별 문제없이 통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하자요’ 같은 존대 표현이 모든 SNS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을 보자.

42) (카카오톡, 남친목방, 2016)

(30대 중후반 남자 5 명의 친목 카카오톡 대화)

현수: 노을 6시쯤 밥 먹고 스크린 치자 ㅋ

철웅: 콜!!

훈재: 0 0

현중: 오키 ㅋ

종석: 알겠엉

위 예문에서는 ‘-하자요’ 같은 존대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격이 비슷한 친목 카카오톡이지만 참여자들이 남자인 경우는 위 예문 41) 여자에게 보이는 ‘-하자요’ 같은 존대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 상대자의 친근감의 차이로도 보일 수 있지만 남자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녀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친분이 없는 사이, 가족 간의 대화방이나 연령으로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 예문처럼 ‘-하자요’ 존대 표현은 인터넷 블로그(blog)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43) (네이버 블로그 <슈쿤's 제주 섬나라 적응기>, 2016)

이대로 괜찮아? 제주 감귤 직거래 가격이....

택배 주문 많이 하자요

44) (네이버 카페 <퍼플맘의 스마트 육아>, 2016)

엄마...

공부 좀 하자요

나 좀 공부하게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하자요

45) (네이버 블로그 <나는야 운후 엄마>, 2016)

할로룸에서 놀면서 디톡스 하자요^^

46) (네이버 블로그 <핑쿠핑쿠해>, 2016)

고양이 숭바꼭질 하자요

위 예문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발췌한 것인데 모두 여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다. 젊은 미혼 여성이나 기혼 여성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하자요’와 같은 존대 표현이 나타나며 남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Twitter 같은 SNS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하자요’ 표현이 쓰이고 있다.

47) (Twitter: 열팻@YEOLPOT, 2016)

EXO 1위 하자요

48) (Twitter: BEATWIN@BEATWIN, 2016)

비트윈 팬들 모두 모여 즐거운 파티 하자요~~!! 뿌잉뿌잉

49) (Twitter: 너의엑사 슈나브로@Xiunabro, 2016)

모두 투표하자요!

위 예문들은 모두 Twitter에서 발췌한 것인데 ‘-하자요’ 형태의 존대 표현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SNS의 특성 중 하나는 화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자' 같은 청유 표현 보다는 '-하자요' 같은 존대 표현이 비록 이상한 형태지만 SNS에서 더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SNS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하자요' 형태의 존대 표현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40대 이상보다는 이 하가,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사이에서 또는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나아가고 싶은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하자' 같은 청유 표현이 담아낼 수 없는 보다 친밀한 대인관계로 발전 시키려는 하나의 언어행위로 '-하자요' 같은 이상한 존대 표현이 나타나게 된 듯하다.

아래 표 3에서 보이듯 아직 국어 말뭉치사전에서는 '-하자요' 같은 존대 표현이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위에 인용한 많은 매체에서 이러한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말뭉치사전에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표 3.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전에 나타난 문어 '-하자요'

| 유형 | 개수 | 예 |
|-----------------------|----|---|
| 1. 종결어미+보조사 [하자+요] | 1 | “내일 하자요, 해도 다됐는데!” 갯마을/1994/마당미디어 |
| 관련없음 | 1 | “네. 사실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요” 아침만들기/1995.3.10 |
| | 2 | |

4. '-하시겠습니까' 존대

최근 한국어에 나타나는 과잉 존대는 객체를 존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예를 보자.

- 50) 공이 병커에 빠지셨어요.
- 51) 생년월일이 언제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 52) 교수님. 점심은 하셨나요?

위 예에서 보듯 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존대할 이유가 없는 객체 '공', '생년월일', '점심' 등에 붙여 잘못된 형태의 과잉 존대를 하고 있다. 아래 예문처럼 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53)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까.

54) 충분히 시장 조사 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이러한 존대 선어말어미 ‘-시’의 반복 사용은 지나친 존대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소비자 우선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릇된 과잉 존대의 예는 주변에 많다.

55) (은행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일단 대출 원금이 8천 2백 되시구요.
미납 이자 포함하면 전부 1억 3십만원이시네요.

56) (백화점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이 제품은 보안처리가 되어 있어서 눈에 부담을 안주시구요
현재 쉐일기간이시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십니다.

57) (백화점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아직 그 물건이 입고가 안 되셨어요.

은행이나 백화점뿐 아니라 이러한 과잉 대우 표현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견된다.

58) (커피숍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손님. 커피에 생크림 올리시겠어요?
지금 생크림 케익은 없으세요.

.....

총 15000원 이세요.

59) (커피숍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커피 나오셨어요

60) (식당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그 메뉴는 안 되세요.

61) (식당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손님, 지금 2층에는 자리가 없으세요.

이러한 선어말어미 ‘-시’의 그릇된 객체 존대에 대한 사용은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번져 나가고 있다. 문법적으로 분명 잘못된 존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객체 존대를 쓰는 당사자가 그러한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강화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한 한 당사자의 말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문법적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높여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사실 그런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간호사나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표현을 썼을 때 손님(또는 환자)를 무시하냐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틀린 표현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박바나나, 다음, 2016. 11. 11)

이러한 현상을 박석준(2004)은 청자에 대한 화자 존대의 화용적 확산으로 보았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상업적 맥락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정복(2010)은 이러한 그릇된 존대 표현을 화자가 공손전략의 하나로 사용하는 상황주체 높임 현상으로 보고 있다. 임동훈(2011)은 상업적 맥락에서 선어말어미 ‘-시’의 객체 존대 현상이 일반화되었다고 보았지만 김은혜(2016)는 일반화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상 상위층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일부 마켓에서만 주로 통용되고 있고 중하위층이 이용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목정수(2013)는 객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존대 대상의 주어 지시 요소로 보고 큰 틀에서 이러한 현상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래호(2012)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를 언급하며 단순한 ‘-해요’체의 존대를 뛰어 넘어 과잉존대의 필요성으로 객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 문법에서 보면 객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는 분명 비문이지만 그것이 화자의 화용전략의 일환으로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민지혜(2014)는 확대된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위 예문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어말어미 ‘-시’가 존대의 대상이 아닌 객체를 존대하는 비문으로 본다면 김영일(2016)이 언급한 대로 그 객체에 관여하는 청자(이런 환경에서는 주로 고객에 해당하는데)를 존대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문으로 본다면 또는 단순한 ‘-해요’체에 ‘-시’를 덧붙여 극존대를 만들어야만 고객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화용적 관점까지 ‘-시’에 관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백수연(2016)은 고객인 청자를 가능한 최대한 공손하게 대함으로써, 즉 가능한 존대 표현을 다 동원해서 청자로 하여금 당신이 지금 존대 받고 있음을 알리는 언어 행위로서 ‘-시’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고객인 청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공손히 대접받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것은 한 언어를 공유하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한 표현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의도와 관점이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백수연, 2016, 108). 따라서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 괴리는 ‘-시’의 존대 표현이 형식적인 별로 진정성이 없는 존대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백화점이나 마켓에서 나타난 이러한 객체 존대 ‘-시’와는 별개로 아래 예문처럼 병원에서 주로 나타나는 ‘-르게요’가 있다.

- 62)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환자분, 이제 나오실게요
잠시 후 처방전이 나오실 거예요
- 63)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여기 꼭 누르실게요.

위 예문에서 보이는 ‘-르게요’ 또한 그릇된 과잉 존대 표현으로 처음에는 이런 표현이 다소 거슬리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렸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올바른 표현인가보다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위 예문에서 보이듯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용하는 ‘나오실게요’나 ‘누르실게요’는 사실 그릇된 존대 표현이지만 이것은 ‘나오세요’나 ‘누르세요’의 청유의 형태로 그 밑바닥에는 명령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허철구(2016)는 다음과 같이 ‘-르게요’에 대해 말하고 있다.

‘-르게요’는 “곧 연락할게” “먼저 갈게”처럼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명령의 뜻으로 ‘하실게요’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연히 “꼭 누르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쪽 문으로 나가세요”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친절한 화법이다. (허철구, 2016, 한국일보 2016. 7. 4.)

이러한 잘못된 형태의 존대 표현 ‘-르게요’에 대한 거부감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한글문화연대는 2013년 8월 14일 KBS 2TV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사용한 ‘-하실게요’라는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달라는 공문을 그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보냈다. 이에 개그콘서트는 같은 해 9월 1일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자막을 내보냈다.

“뽀 엔터테이너 코너에서 사용하는 말투인 ‘-하고 가실게요’는 주체 높임형 선어말어미 <-시>와 약속형 종결 어미 <-르게>가 함께 쓰인 잘못된 표현으로, <-할게요/-하겠습니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담당 프로듀서(개그콘서트, KBS 2TV, 2013. 9. 1)는 “시청자들에게 개그콘서트가 이런 지적들도 받고 있다고 알리고 싶었다. 개그는 다큐나 교양이 아니다. 바른말만 써야 한다면 아나운서들이 개그를 해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개그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그릇된 존대 표현이 유행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것은 분명 한국어의 파괴인 만큼 이를 경계하는 임철순(2013) 한국일보 논설고문 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도 있다.

또한 ‘-크게’ 같은 약속형 어미로 ‘-하겠습니다’가 있는데 존대 선어말 어미 ‘-시’가 ‘-하겠습니다’에 붙어 그릇된 존대 형태 ‘-하시겠습니다’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64) (A 중고등학교 교무실 cool messenger, 2016)

수신인: 1학년, 2학년, 3학년, 과학실, 상담실, 보건실, 급식실 ...

발신인: 각 실에 계신 선생님들께 알립니다.

오늘 오후 4시, 종례를 마친 후 본교 소회의실에서 교직원 연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교직원 연수에 참석하셔서 학생 인성교육함양에 힘쓰도록 하시겠습니다. -연구부장-

65) (초중고등학교)

다음으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66)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내일까지 교직원 평가서를 제출하시겠습니다.

위 내용은 교직원들 사이에 이미 흔해빠진 말투다. 약속형 종결 어미 ‘-하겠습니다’에 존대 선어말 어미 ‘-시’가 붙은 ‘-하시겠습니다’의 이상한 존대 표현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단순한 약속으로는 그 약속이 쉽게 이행되리라 여겨지지 않을 때 약속 이행의 주체를 격려하고 존대하려는 기저 심리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67) (교회 예배)

목사: 지금부터 다 같이 성경 잠언 6장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위 예문은 예문 64)이나 66)에 비해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하세요’ 같은 완곡적인 요구 또는 ‘-합시다’ 같은 청유보다 약속형 존대 표현으로 ‘-하시겠습니다’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약속 이행을 보다 쉽게 끌어내려는 효과를 노린 표현이다.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는 명령형 표현이다. 예컨대 ‘-해’, ‘-해라’ 같은 명령형 표현은 집단이나 조직 내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청자에게는 거부감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자’, ‘-합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하자요’ 같은 청유 형태를 씀으로써 청자의 거부감을 줄이거나 없애고 약속 이행을 보다 쉽게 끌어내려는 것이다. 더욱이 ‘-하시겠습니다’는 단순한 청유 형태를 넘어 청자의 자발적인 약속 이행 의지를 격려함으로써 실제로 약속이 잘 이행되는 효과를 노린 과잉 존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심리적 효과는 아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68) (모임에서)

사회자: 지금부터 다 같이 노래를 연습하시겠습니다.

위 예문에서 ‘-하시겠습니다’는 비록 그릇된 표현이지만 ‘-하겠습니다’에 비해 존대 선어 말 어미 ‘-시’를 붙임으로써 아무래도 청자들을 좀 더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즉 존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약속 이행의 자발적인 의지를 부추김과 동시에 약속 이행의 완곡한 독려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그릇된 과잉 존대 표현이 우리 사회에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하실게요’에 대한 한국어 말뭉치 사전 검색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래 표 4는 ‘-하시겠습니다’의 말뭉치 사전 검색 결과이다.

표 4. 국립국어원 말뭉치 사전에 나타난 문어 ‘-하시겠습니다’

| 유형 | 개수 | 예 |
|---------|----|--|
| 하시겠습니다. | 16 | “두 후보께서 1분30초 이내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1997/토론 |
| | 16 | |

표 4에서 보이듯, 비문법적인 ‘-하시겠습니다’ 존대 표현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쓰이는 빈도보다 훨씬 적게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표 3에서 나타난 ‘-하자요’와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어 말뭉치 사전이 한국어에 새롭게 나타난 이러한 표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5. 결론

최근 한국어에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존대 종결어미를 ‘-다요’, ‘-하자요’, 그리고 ‘-하시겠습니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종결어미가 존대를 나타내는 잘못된 형태이기에 사용 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주장도 있지만 언어라는 것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변이형을 만들어 가고 때가 되면 그 형태가 통용되어 또 다른 정형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지금 비록 잘못된 형태로 취급 되는 이러한 변이 형태의 존대 표현을 본고에서는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어린이 특히 여자 아이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다요’ 존대 표현은 종결어미 ‘-다’에 존대

보조사 '-요'를 붙이는 현상이다. 성인에게서 과잉 존대나 극존대의 하나로 '-다요'체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존대 '-다요'는 비록 그 형태가 성인의 과잉 존대 '-다요'와 같아도 그들이 과잉 존대나 극존대의 표현으로 성인에게서 학습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된 존대 표현이 자리 잡기 전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존대 표현이다. 즉 어린이가 대략 초등학교를 마치는 14세 쯤 되면 대부분 이러한 과도기적 '-다요' 존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어린이가 처한 언어 환경에 따라 이러한 변이 형태의 '-다요' 존대 형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상식이지만 부모가 어린이에게 제대로 된 존대 표현을 잘 학습했다면 또는 이러한 '-다요' 존대 표현을 잘못된 형태라고 지적하고 수정했다면 그들의 '-다요' 표현에 대한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 시기부터 존대 표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몇몇 선행 연구(김진희, 2001; 김세원, 2009)에서 그 시의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만 2세를 전후하여 유아의 존댓말 사용이 관찰되며 한국어 존대 종결어미 '-요'가 존대 선어말 어미 '-시'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Lee, 1993; 김영주; 1994; Kim, 1997; 이귀옥, 1997; 이순형, 2001; 김명순 & 강옥경 & 임양미, 2008; 박진이 & 김진진, 2010) Lee(1993)는 이러한 현상은 유아들이 종결어미를 선어말어미보다 쉽게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Slobin(1985)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한국어 존대 표현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유아들이 이것을 쉽게 터득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 문장 끝이라는 뚜렷한 위치 때문에 종결어미 '-요'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소 '-야', '-다' 등도 이른 나이에 비교적 쉽게 학습이 된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부모의 학습 열기, 유아의 성장 환경 및 교육 과정 등이 유아의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인용한 선행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며 경험했던 바로는 보통 만 2세 정도부터 곧잘 말을 따라하고 몇몇 종결어미들을 사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07) 역시 이른 시기부터 유아의 존대 표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언어생활영역의 말하기에 '어른께 존댓말을 사용한다'와 '상황과 대상에 적절하게 예절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를 수준별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을 가진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학원 학교 여선생님들도 어린이가 사용하는 이러한 과도기적 존대 표현 '-다요'를 쓰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런 '-다요' 표현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다. 이들도 친한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아이들과고는 다르게 무엇인가 자랑을 드러내 놓고 하지 않으면서 약간 우회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나 어린 아이처럼 보여 자랑하는 민망함을 줄이려는 애교 섞인 대화기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어른들의 이러한 '-다요' 사용은 아이들이 쓰는 '-다요' 표현을 어른이 사용함으로써 예의 없다거나 못 배웠다는 인식을 상쇄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에서 나타난다.

청유형 '-하자'에서 존대 어미 '-요'를 붙여 나타난 존대 표현 '-하자요'는 최근 SNS를 매체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SNS에서는 그 특성 상 단어 축약과 짧은 문장,

그리고 많은 이모티콘의 사용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최근 ‘-하자’보다는 거기에 존재 보조사 ‘-요’를 덧붙인 ‘-하자요’가 청유형 존재 표현으로 SNS에 나타났다. ‘-하자요’ 존재 표현은 단순히 무엇을 ‘하자’라고 요청하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그렇다고 썩 먼 사이도 아니지만 존재어미 ‘-요’를 붙임으로써 청유하는 행위가 좀 덜 어색하고 좀 더 친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나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 남자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SNS를 주로 이용하여 소통을 하는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하자요’ 존재 표현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SNS에서의 소통은 주로 많은 사람이 때로는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형태의 청유형 ‘-합시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하자요’ 같은 그릇된 또는 이상한 변이형태가 등장하고 그것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쓰임이 이미 SNS에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 ‘-합시다’는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고 그렇다고 ‘-하자’ 하기에는 너무 가까워 보여 망설이게 될 때 그 중간 형태의 하나로 ‘-하자요’가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커피 나오셨어요.” 같은 객체 존재에 관하여 이것이 잘못된 표현이나 아니면 생략된 주어 혹은 주체나 청자 존재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나 등 오랫동안 그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 잘못된 표현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존재 표현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발화를 하는 당사자도 이것이 비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주로 고객)을 존재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사실 그 잘못을 따질 상황은 넘어선 듯하다. 즉 변이 형태가 굳어져 이미 한 자리를 엄연히 차지했다라고 본다.

병원에서 주로 듣게 되는 ‘-실게요’는 약속형 종결어미 ‘-르게요’에 존재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형태로 비문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이것 역시 자주 쓰이고 있는 존재 표현이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존재한다는 취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듣기에 여간 거부한 것이 아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존재 받고 있다는 느낌도 별로 들지도 않는다. 고객은 왕으로 모실려거든 제대로 된 ‘-하세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게요’ 표현 또한 어느새 변이 형태로 굳어진 듯하다.

‘-실게요’하고는 다르게 ‘-하시겠습니다’ 존재 표현은 학교나 교회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쓰이고 있다. 무엇인가 하도록 ‘-해라’체를 사용하여 명령하기에는 청자가 그럴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존재 표현으로는 약속 이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 될 때 존재 선어말어미 ‘-시’를 덧붙여 비문법적 과잉 존재 ‘-하시겠습니다’를 만들어 낸 듯하다. 그렇다고 약속이 이행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가능한 극존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도한 바를 달성하거나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려는 언어 행위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다요’, ‘-하자요’, ‘-하실게요’ 그리고 ‘-하시겠습니다’ 존재 표현은 각각 그 쓰이는 주체와 장소가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표현이 옳은 표현이나 아니냐를 두고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이 형태가 언젠가는 정형

으로 엄연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의 역사는 이를 확연하게 보여 주고 있다. ‘사글세’가 ‘삭월세’를 그리고 ‘했습니다’가 ‘했읍니다’를 몰아냈으니 말이다.

참고문헌

- 개그콘서트. (2013). *KBS 2TV*. 2013. 9. 1.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I, II, III*. 교육과학기술부.
- 김명순, 강옥경, & 임양미. (2008). 유아의 존댓말 사용과 어머니의 인식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5), 273-293.
- 김세원. (2009). 초등학생 높임법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한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김영일. (2016). 청자 존대 ‘-시-’의 종합적 검토. *언어과학*, 23(1), 53-87.
- 김영주. (1994). 높임말 사용의 지도. *초등국어교육*, 4, 27-50.
- 김은혜. (2016). 한국어 선어말어미 ‘-시-’의 사물 존대 기능: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판매원의 발화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4(1), 91~113.
- 김진희. (2001). 초등학교 아동의 대우법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교육*, 11, 103-130.
- 네이버블로그. (2016). *슈쿤's 제주 섬나라 적응기, 나는야 윤후 엄마, 핑쿠핑쿠해*.
- 네이버카페. (2016). *퍼플맘의 스마트 육아*.
- 목정수. (2013).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67, 63-105.
- 민지혜. (2014). ‘-시-’의 확대 사용 양상에 대한 문법 교육적 연구: 서비스 업종의 담화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석준. (2004). 선어말어미 “-시-”의 문법외적 용법에 관하여. *한말연구*, 14, 201-220.
- 박진이·김민진. (2010). 만 3, 4, 5세 유아의 존댓말 습득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1(6), 153-166.
- 백수연. (2016). 한국어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의 공손 전략과 그 유용적 확장: 판매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2016년 겨울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9-110.
- 이귀옥. (1997). 유아의 언어적 특징과 교수법: 존대법 습득 현황 조사. *언어연구*, 1, 23-36.
- 이래호. (2012). 선어말 어미 ‘-시-’의 청자 존대 기능에 대한 고찰. *언어학연구*, 23, 147-166.
- 이순형. (2001). 한국 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 시기. *아동학회지*, 21(4), 1-18.
- 이정복. (2010).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55, 217-246.
- 임동훈. (2011). 담화 화자와 사회적 화자. *한국어 의미학*, 36, 39-63.
- 임철순. (2013).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하실게요’라고 말하지 말라. *한국일보* 2013. 10. 7.

- 카카오톡. (2016). *김쌤방, 중당방, 여친목방, 남친목방*.
- 허철구. (2016). [우리말 톨아보기] 하실게요. *한국일보* 2016. 7. 4.
- Choi, I. (2004). Partial honorific agreement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2), 207-225.
- Cool messenger. (2016). A 중고등학교 교무실.
- Home. (2015). *Movie*. Dreamworks production.
- Kim, Y. J. (1997). The acquisition of Korean. In D.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4 (pp. 335-44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C. (1993). The acquisition of mood indicators in Korean. In S. Kuno, J. Whitman, Y.-S. Kang, I.-H. Lee, J. Maling, & Y. Kim (Ed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ol. 5* (pp. 41-61). Seoul: Hanshin.
- Slobin, D. I. (1985). The crosslinguistic evidence for the language making capacity. In D.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2. *Theoretical issues* (pp. 1157-125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witter. (2016). *열꿏@YEOLPOT, BEATWIN@BEATWIN, 너의엑사 슈나브로@xiunabro*.
- Yaang, B. (2006). The study of subject honorific marker -(u)si- in RR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4(3), 95-115.

Jeong Khn Ahn

Department of English

College of Humanit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561-756

Phone: 82-63-270-3213

Email: jkahn@jbnu.ac.kr

Received on June 28,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2, 2017

Accepted on September 30, 2017